

60회 변리사시험 합격 수기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강현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0회 변리사 시험 합격생입니다. 저도 수험생활 중에 합격수기를 보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수기를 작성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 수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 및 경험담에 불과하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수험생활을 보내고 계신 수험생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런 사람도 합격하는구나’ 정도로만 읽으시고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이전의 수험 기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삼시 기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 강사님들의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II. 시기별 점수 및 수험생활 일반

58회 1차	평균	82.5	합격선	76.66
60회 1차	평균	77.5	합격선	70.8
59회 2차(기득)	평균	54.55	합격선	55.22
60회 2차(삼시)	평균	58.77	합격선	54.33

(1) 생활 루틴

평일에는 아침 8시까지 학교에 도착해서 12시간 앉아있는 것을 목표로 생활했고 보통 저녁 9~10시 사이에 퇴근했습니다. 주말 GS 시즌에는 저녁 먹은 뒤에 근처 스터디카페에서 그날 들은 GS 복습 마친 뒤에 집에 갔습니다. 아침에 공부하는 것을 선호해서 쉬는 요일을 정해놓고 쉬기보다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쉬거나, 친구 등을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2) 운동 및 건강 관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다보니 목, 허리 등이 박살나는 걸 느꼈고, 기득 시점부터는 매일 집에 가서 폼롤러 등으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습니다. 따로 헬스장을 다니거나 하지는 않았고 공부 끝난 뒤에 집에 가서 런닝을 하거나, 가끔 풋살 등을 하는 걸로 체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스트레칭 등을 병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손목이 좋지 않아서 계속 물리치료 등을 받고있고, 수험 기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손목은 한 번 아작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그립 등과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거나, 손목보호대를 사용하시는 등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면 저와 같은 불상사를 겪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II-1. 58회 1차 시험

(1) 민법 : 90점 / 민법공방 / 민법공방연습

김동진 강사님 기본강의 및 최종정리 강의를 수강하였고 이외의 강의는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강의 수강 시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민법공방(이하 기본서)을 2주에 1회독씩 하였고, 소위 '짱돌'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3~4회독 당 한 번 정도만 눈에 바르는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민법공방연습(이하 문제집)의 경우 전날 기본서에서 회독한 부분을 다음 날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홀수 번호와 짝수 번호를 나누어서 기본서와 같은 주기로 회독하였습니다. 문제집의 경우 양이 많으므로 모든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식과 같이 나누어서 푸는 것이 전 범위를 보다 짧은 주기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집 풀었을 때 답을 맞추지 못했거나 맞추었다더라도 헛갈리는 지문의 경우 해당 지문의 올바른 형태를 기록하여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한 번 보고, 다음 날 아침에 한 번 보고 나서 버리는 과정을 시험 2주 전까지 반복했습니다. 시험 2주 전부터는 헛갈리는 지문을 모두 기록하여 시험장에 들고 가서 시험 직전까지 보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학습을 통해 시험장에서 '익숙한 지문이 정답 지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법의 경우 양이 많고, 처음으로 법학을 학습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초기 학습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5분 정도까지만 고민하시고 강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거나, 그냥 일단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회독 시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 공부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었던 지문이, 다음 회독 시에는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내가 모르면 답이 아니다.'라는 마인드로 문제를 풀라는 강사님의 조언이 있었고, 저 또한 해당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출제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양을 늘리시기보다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과 강사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확실하게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게 민법 점수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 특허법 : 17/20 / 조현중 조문노트 + 판례노트 / 홍기석 특허법 객관식

조현중 기본강의, 조문강의, 판례강의 수강하였습니다. 객관식의 경우 약 5회독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기본서는 기본강의 수강 이후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조문노트와 객관식 교재를 위주로 학습했고, 판례집의 경우에는 밑줄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읽고 판례 원문은 거의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의 경우 단순히 문제를 맞추기 위해 푸는 느낌보다는 모든 지문의 OX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헛갈리거나 틀린 지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민법의 경우와 같이 올바른 지문의 형태로 기록하여 그날 공부를 마무리할 때와, 다음 날 공부를 시작할 때 보고 버렸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전체 절차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허의 출원 준비 단계, 출원에서부터 등록, 등록 이후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지금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이 어느 시점에 해

당하는지에 대한 위치 설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특허 기본서가 이러한 순서로 목차가 서술되어 있으므로, 편한 마음가짐으로 목차만을 쭉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1차 특허법의 경우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1차 시험에서 수험생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 보통 조문과 관련된 소위 ‘말장난’ 문제입니다. 조문 관련 자료를 통해 조문에 익숙해지시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집 회독을 꾸준히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상표법 : 9/10 / 김영남 핵심이론정리 / 원대규 상표법 객관식

김영남 기본강의, 핵심이론정리강의 수강하셨습니다. 객관식의 경우 약 3회독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이전에 학습하였던 민법, 특허법에 비해 양이 적고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는 느낌을 받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집 풀이법은 앞서 언급한 민법, 특허법과 동일합니다.

상표법의 경우 판례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판례의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판례집을 따로 구매하셔서 판례를 보다 꼼꼼하게 학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판례 학습을 따로 할 경우, 1차 시험에서 판례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될 뿐만 아니라 이어질 2차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주요 논거와 결론 정도만을 숙지하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1차 시험을 붙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전형상표, 마드리드 의정서 등과 같은 공부하기 싫은 부분은 하루 정도 날을 잡고 해당 부분만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루다보면 시험 직전까지 불안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시험장에서 해당 부분은 항상 1문제씩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은 특허법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표법 성격에 따른 조문, 절차 등을 숙지하시면서 꾸준히 학습하시면 10문제를 풀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디자인보호법 : 9/10 / 김웅 디자인보호법 기본서 / 김웅 기출문제집

김웅 기본강의 수강하셨습니다. 기출문제만 약 3회독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양이 적긴 하지만, 너무 늦게 시작하지는 마시고, 일찍 강의를 수강하신 뒤에 매일매일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을 학습하시는 동안에는 특허법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되, 특허 및 상표와 디자인의 차이점을 항상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0회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기출문제만을 학습하여도 1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다른 문제가 수록된 객관식 문제집을 1회 정도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선택과목을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할 예정이신 분들은 기본서를 보다 자주 읽으시면 이후 2차에서 디자인보호법 암기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물리 : Art of physics / 손용욱 물리 문제집

변상규 기본강의 수강하였고, 6~7개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물리2까지 배웠고, 이후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물리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스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본 강의 수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리가 아예 노베이스인 분이 아니라면 기본강의보다는 문제 풀이 강의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교 류 부분 등은 배제하고 빈출되는 부분을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손용욱 물리 문제 및 그 당시 카페에 업로드 되어있던 피트 기반의 문제들을 3회독 정도하고 시험장에 들어갔고, 자주 잊어 버리는 공식이나 자주 하는 실수들을 포스트잇에 써놓고 책의 맨 앞장에 붙여놓고 매일 봤습 니다.

공식을 암기하신 뒤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빠르
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화학 : 새로운 화학 / 새로운 화학 객관식

기본강의 수강하였고, 6~7개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화학2까지 배웠고, 대학에 서는 일반화학까지 수강한 상태였습니다. 유기화학은 수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학의 경 우 기본강의 수강 시에 모르는 내용보다는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강의 수강 시에 집중을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화학 또한 저와 비슷한 수준의 베이스가 있으시다면 특정 부 분만을 다루는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이성질체, IR 등의 부분들은 시간 여유가 없으시다면 버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겠지만, 최근 1차 시험 합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만큼 최대한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해 당 파트도 미리 준비해두고 꾸준히 보다보면 나오는 부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와 마찬가지로 공식을 암기하신 뒤에, 많은 문제를 푸시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최대 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7) 생물 : 펙스 생명과학(생물 요약서) / 따뜻한 생물(기출문제)

강의는 수강하지 않았고, 6~7개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생명과학2까지 배웠고, 대학에서는 일반생물학까지 수강한 상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1차 전과목 중에 가장 공부 효 율이 떨어지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과 전공이 무관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은 5개 정도를 목표로 적은 양의 기본서 내용만을 학습하시고 기출문제를 푸신 뒤에 시험장에 가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 는 선에서 시간 투입을 하셔야 7개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 듭니다.

기본개념에서 응용을 요하는 문제보다는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지가 문제의 정답 유무를 가르 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선 물리 화학의 경우와는 달리 문제 풀이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기본 개념 숙지를 위한 암기와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교재의 경우, PDF로 된 생명과학 요약서였고, 양이 적어서 선택했습니다. 해당 교 재에 기출문제 선지를 정리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부했습니다. 시각 자료가 잘 되어있고 정리

도 잘 되어있는 교재였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부터 더 이상 제작을 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지구과학 : 박준희 기본서 / 박준희 기출문제

박준희 기본강의 수강하였고, 9개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의 경우 9~10개를 목표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투입 대비 상승량이 가장 확실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서에 수록된 문제들만으로도 시험을 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 개념 숙지를 바탕으로 적절한 문제풀이를 병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목표하시는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II-2. 60회 1차 시험

(0) 삼시 1차 시험 준비 시의 마음가짐

저의 경우 부끄럽지만 기득탈 이후에 이 시험 공부를 지속할지에 대한 고민을 꽤나 오래 했습니다. 이후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민법 중급강의 수강을 마친 시점이 2023년 1월 초였습니다. 올 해 아쉬운 결과를 얻고 새롭게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마음을 다잡으시고 민법 공부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셨던 경험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란하고 불안하시더라도 하시던 대로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민법 : 82.5점 / 민법공방 / 민법공방연습

김동진 중급강의 수강하였습니다. 중급강의 완강 시점이 1월 10일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시점부터 기본서 및 문제집을 3회독 하였습니다. 헛갈리거나 틀렸던 지문을 정확한 지문으로 바꿔 기록하고 보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1차 시험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야 김동진 강사님 카페에 업로드된 민법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해당 모의고사에서 90점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를 얻는 후에야 어느 정도 안정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1차 시험에서 시험장에서의 체감과 달리 실제 채점 시에 생각보다 점수가 좋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복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민법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좋지 않은 점수를 획득한 것에 미루어 볼 때 특정 과목을 배제하는 등의 학습 방법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언급 드렸지만, 수험생분들이 모르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나오더라도 정답이 아닐 것이고, 내가 모르면 내 옆에 계신 분들도 모르실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항상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2) 특허법 : 19/20 / 특허법 조문 + 최종정리 자료 + 기출문제

특허법 공부를 1월 중순에서야 시작했기 때문에 최종정리 자료를 2회독, 기출문제를 3회독 하

였고, 나머지 시간은 조문 학습에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헛갈리는 지문 및 조문 등은 따로 기록해두고 하루에 1번씩 봤습니다. 삼시 1차를 준비할 때에는 산재법의 판례 문제에 대한 대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문을 위주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상표법 : 10/10 / 상표법 조문 + 최종정리 자료 + 기출문제

앞서 서술한 특허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상표법의 경우 특허법보다도 2차 준비 시에 조문의 활용도가 더 낮기 때문에 조문 학습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디자인보호법 : 9/10 / 이준권 All-in-one 노트

해당 교재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과 기출 선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선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특허, 상표와 동일합니다.

(5) 자연과학

물리 : 손용욱 물리 공식 + 문제집

화학 : 이문환 화학 문제집

생물 : 플스 생명과학 / 따뜻한 생물(기출문제)

지구과학 : 박준희 기본서 / 박준희 기출문제

학습 방식은 58회 1차 시험 준비 방식과 동일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삼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보다는 민법 및 산재법에 시간 투입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동차 기간 *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아 수기로 남길만한 내용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사례강의, 기초GS, 실전GS B형 수강하였으나 제대로 된 공부 없이 단순히 강의 쫓아가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특허법, 상표법의 경우 기초, 실전GS 수강하였으나 인강으로 수강하여 제대로 된 답안 작성 연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허와 디자인보호법만 50점을 넘겼고, 나머지 과목은 과락을 면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IV-1. 기득 기간

(1) 과목별 점수 및 기본서

1) 민사소송법 : 65점 / 윤곽 민사소송법 + 통합 민사소송법 사례집 + (통합 민사소송법, 윤곽 민사소송법 사례집)

- 2) 특허법 : 51점 / 테마 특허법 기본서 + 판례집 + 사례집 + (준특허법)
- 3) 상표법 : 47.66점 / 테마 상표법 기본서 + 판례집 + 사례집
- 4) 디자인보호법 : 58.33점 / 택틱 디자인보호법 + (택틱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2) 월별 수강한 GS

2월	서상철 실전 / 한경훈 실전
3월	박형준 실전 / 객준형 실전A(인강)
4월	이창한 실전A / 박지환 실전(인강) / 최지환 실전(인강)
5월	객준형 실전B(인강) / 박형준, 한경훈 콜라보 / 정다운 기초(인강)
6월	이창한 실전B / 박지환, 최지환 콜라보(인강) / 정다운 실전(인강)

(3) 기득 수험기간에 관한 고찰

과목별 공부 방법은 삼시 기간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차에서 기득을 넘어가는 기간의 경우 GS 시즌 전의 기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부터 2월이 되기 전까지는 민소 심화강의, 특허나 상표 기본, 판례 강의 등을 수강하시면서 이해 위주로 깊은 내용의 공부를 하시거나, 암기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박형준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GS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암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GS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암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하지만 계속 미루다보면 GS에서 본인의 실력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IV-2. 삼시 기간

문항별 득점	1문	2문	3문	4문	총점
특허법	48	35	46	31	53.33
민사소송법	71	45	58	29	67.66
상표법	47	26	58	35	55.33
디자인보호법	55	36	49	34	58.33

(1) 기본서 및 수강한 GS

- 1) 민사소송법 : 윤곽 민사소송법 / 윤곽 민사소송법 사례집 + (통합 민사소송법 사례집)
- 2) 특허법 : 테마 특허법 기본서 + 준특허법 동차용 암기자료 + (테마 특허법 사례집) + (신 특허법 사례집)
- 3) 상표법 : 테마 상표법 기본서 + 테마 상표법 판례집 + (청 상표법 판례집)
- 4) 디자인보호법 : 택틱 디자인보호법 + (택틱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3월	남솔잎 실전 / 객준형 실전A
4월	이창한 실전A(인강) / 박지환 실전A(인강) / 최지환 실전A(인강)
5월	박형준 실전 / 원해린 실전(4회 수강) / 객준형 실전B(인강) / 김세원 실전(인강) / 정다운 실전GS(인강)
6월	이창한 실전B / 최지환, 박지환 콜라보(인강) / 김세원, 박형준 콜라보(인강)
7월	이준권 실전GS(인강)

(2) 과목별 공부 방법

1) 민사소송법

● 공부방법 일반

전체 공부 시간 중에 절반은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기본서를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2주에 1회독씩 할 수 있도록 했고, 사례집의 경우 첫 주에는 홀수 번호의 문제만 풀었고, 그 다음 주에는 짝수 번호의 문제만 푸는 방식으로 4주에 걸쳐 전체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례집 문제만을 따로 문서화하여 해당 자료를 보고 사례집 목차를 잡은 뒤에, 사례집을 보고 저의 목차와 사례집 목차의 다른 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주 빼먹거나 결론이 다르게 가는 논점의 경우 포스트잇에 적어 놓고 책의 표지에 붙여서 하루에 한 번씩은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정 논점에 대한 정형화된 목차의 경우 따로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 문제풀이 방법

민사소송법의 경우 문제에 주어진 단어를 보고 어떠한 논점을 써야할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해야 할 논점을 알려주는 단어를 '트리거'라고 불렀는데, 이 '트리거'를 문제에서 확인한 뒤에는 밑줄을 쳐서 옆으로 빼낸 뒤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잡을 때에 해당 논점들의 순서 및 배점에 따른 강약조절을 고려하여 목차를 잡았습니다. 문제 해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최신판례가 포함된 논점들의 경우에는 다른 논점들에 비해 강하게 적으려고 했습니다. 답안지 작성 시에는 내용을 최대한 풍성하게 적고, 문제를 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문제에서 묻는 점을 목차화하여 기재했습니다.

● 소회

민사소송법의 경우 처음 배울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목이지만, 꾸준히 참고 하시다 보면 가장 투입 대비 리턴이 확실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차분들의 경우 기본강의, 사례강의를 최대한 빠르게 들으신 뒤에 기초GS 등을 들으시면서 기본서 암기를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득 이상분들의 경우, 민소 답안지는 수험생들 간에 큰 편차가 없는 편입니다. 비슷한 답안지 속에서 채점위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기 쉽고,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답안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특허법

특허법 또한 기본서를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2주에 1회독씩 하였고, 판례집의 경우 1달에 1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득 기간에는 특허법 사례집을 보았는데, 모든 문제의 목차를 잡고 풀어보는 방식으로 2회독 정도 진행했습니다.

삼시 기간에는 특허법 사례집을 보지는 않았고, 기존에 보던 사례집과 남솔잎 변리사님의 사례집의 기출문제 부분을 풀어보고 비교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절차형 문제와 판례형 문제 모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절차형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으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풀어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전GS와 기출문제, 사례집 등에서 절차형 문제를 풀 때 본인이 하는 실수, 자주 빼먹는 조치 등을 미리 체크해두셨다가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틀을 두문자 등을 활용하셔서 외우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상표법

기본서와 판례집을 합쳐서 2주에 1회독씩 했습니다. 기득 기간에는 사례집을 보았으나, 삼시 기간에는 사례집은 보지 않았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삼시 때는 기출문제도 풀지 않았습니다.

상표법은 판례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특정 판례를 다루고 있는 경우, 해당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논점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 상표법 판례집의 경우 해당 판례에서 논점이 되는 부분이 답안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판례를 학습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GS에서 나온 판례의 경우 판례집에 따로 표시를 해놓고, 신경 써야할 부분을 맨 앞쪽에 기재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GS 문제를 짧게라도 복습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해에 소위 A급이라고 불리는 판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례들의 경우, 해당 판례의 이름만을 적어놓고 밑에 관련 논점, 두문자 등을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논거'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알고있어야 합니다. 보통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공부부족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있어야 시험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논점을 찾고 결론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므로 '어떠한 상황'에 대한 내용도 신경 써서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디자인보호법

기본서를 2주에 1회독씩 했습니다. 판례집의 경우 특정 판례가 GS에 출제되는 경우 등에만 따로 찾아보았고 주기적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1차에서 이미 배운 과목이기도 하고, 제가 베이스가 확실히 있는 선택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했습니다. 선택과목이고, 양이 많지 않은 만큼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꾸준히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패스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문 암기를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GS를 2개 정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V. 답안지학

(1) 서론

2차 공부를 하는 동안은 자신의 답안지를 끊임없이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는 답안, 조금이라도 더 읽기 쉬운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만 안정적인 점수를 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지향하는 답안지

여러 강사님들별로 답안지 스타일이 다르시고, 답안지에 완벽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차 기간에는 본인이 메인으로 삼은 강사님의 답안 스타일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하시고, 이후에는 본인만의 답안지를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답안지는 '저점이 높은 답안지'였습니다. 저점이 높은 답안지란 문제 유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한 눈에 잘 들어오는 답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솔잎 변리사님과 객준형 변리사님의 답안지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고, 최대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답안지를 기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 답안 형식

1. 문제의 소재 : 이하에서 검토할 논점들을 기재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3줄을 넘기지 않게 기재했습니다.

2. ~한지 여부1 - 적극 or 소극

(1) 학설 - 민사소송법의 경우 학설 이름과 주요 논거를 외워 기재하였고, 특히, 상표, 디자인은 중요한 학설의 경우만 기재하고 거의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판례 - 최대한 원문과 가깝게 기재하고자 노력하였고, 4~5줄 정도로 기재했습니다.

(3) 검토 -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만 기재하였습니다. 주로 특정 학설들의 비판 논거를 기재하고 판례의 타당한 점을 기재한 뒤 판례를 지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3. ~한지 여부2 - 적극 or 소극

4. 설문의 해결 : 논점들의 결론을 다시 한 번씩 짚어준 뒤에, 문제에서 묻는 바에 따른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IV. 마치며

(1) 감사인사

짧지 않은 수험 기간 동안 항상 응원해주시고, 합격한 저보다 더 기뻐하셨던 엄마, 아빠를 포함한 모든 가족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기오기를 비롯한 저희 과 동기들, 선후배님들, 용당을 비롯한 순천 친구들, 청암을 포함한 고등학교 친구들. 덕분에 합격한 걸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지현 누나, 민지 누나, 규해가 내년에는 학교를 떠날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스터디했던 모든 분들과 강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 맺음말

부족하지만 제 수기가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시험에 도전하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을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본인을 다독여주면서 수험생활을 지속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 추가로 듣고싶으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lk5197@naver.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